

비구니 정혜도량(1994)의 역사와 성격

김광식*

• 목 차 •

- I. 서언
- II. 정혜도량의 출범
- III. 정혜도량의 활동
- IV. 결어

* 동국대학교 특임교수.

© 『大覺思想』 제35집 (2021년 6월), pp.9-44.

한글요약

본 고찰은 1994년 종단개혁 당시에 자생적으로 등장하여 활동한 비구니의 개혁 단체인 '정혜도량'의 역사와 성격을 학술적으로 정리한 글이다. 94년 종단개혁에 대한 연구는 심화되지 않았지만, 종단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비구니의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런 배경 하에서 이 글에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유의하였다. 첫째, 정혜도량의 출범 과정을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살피고자 하였다. 둘째, 정혜도량의 활동과 성격을 문헌 및 증언에 의지하여 구체적으로 살피고자 하였다. 정혜도량은 종단 출범 이전에 비구니들의 종단개혁의 단일창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출범하였다. 셋째, 정혜도량이 종단개혁이 진행되던 94년 중반기에 스스로 퇴진한 원인과 한계를 살피고자 하였다. 정혜도량은 비구니들의 개혁의지를 전달하였으나, 종단 출범 직전에 자진 해산하였다. 넷째, 정혜도량의 영향 및 계승의식을 살피고자 하였다. 정혜도량은 비구니들의 개혁정신에 역사는 되었으나, 계승의 의지는 박약하였다.

이 글이 94년 종단개혁, 한국 현대 비구니사, 조계종단의 비구니사 등의 연구에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비구니의 역사, 문화, 성격 등에 대한 연구는 저조한 상황이다. 수년 전, 조계종단 전국비구니회와 비구니연구소에 의해서 비구니 문중의 큰스님의 수행과 삶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나 그 후속 연구는 나오지 않고 있다. 최근 전국비구니회의 산하에 한국 비구니승가연구소가 개설되었거니와 이를 계기로 비구니 연구가 활성화 될 것이다. 이 글이 비구니에 대한 새로운 연구의 흐름에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

주제어

비구니, 정혜도량, 종단개혁, 조계종단, 전국비구니회, 비구니연구소

I. 서언

한국 현대불교의 비구니 역사 가운데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었으니 그는 1994년의 ‘정혜도량’의 출범이었다. 1994년에 일어난 ‘종단개혁’은 한국 현대불교사, 조계종단사에 큰 영향을 미친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그 사건의 개요 및 성격, 영향, 긍정 및 부정, 평가, 비판 등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는 명성에 걸맞지 않고, 미약하다. 현재 94년 종단개혁에 대한 연구는 우호성, 당위성에 의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¹⁾ 사실, 진실, 역사적 평가 등에 관련된 연구는 사건 당사자들과 그 범손들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곤혹스럽다. 또한 불교계의 역사에 대한 성찰의식의 미약, 그리고 사건에 관련된 자료집이 미비한 것도 연구의 장애물이다.

필자는 한국 현대불교사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조계종단의 종단개혁에 대한 몇 편의 글을 발표한 바가 있다. 그런데 그 글은 비구 중심의 연구이었다. 그래서 비구니에 대한 연구도 해야 한다는 소박한 생각은 하였으나 여건상 연구에 주력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종단개혁 당시에 출범하였던 비구니들의 개혁 모임이었던 ‘비구니 정혜도량’²⁾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하겠다는 목표는 세웠다. 그러나 자료 수집은 미진하였고, 관련자들의 증언 인터뷰도 하지 못하여, 연구의 기회를 잡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필자가 최근 비구니 연구에 대한 관심을 가질 기회를 갖게 되면서,³⁾ 이번 기회에 94년 종단개혁 당시에 활동한 정혜도량의 개요를 소개라도 하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이 글이 94년 종단개혁, 비구니 개혁운동사, 전국비구니회의 역사 등의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 글은 정혜도량의 역사와 정신을 방치하고 있는 비구니 단체의 역사 계승의식의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전국비구니회가 주도하여 정혜도량에 대한 자료집 발간과 연구 사업이 나오

1) 김광식, 「90년대 조계종단 ‘개혁’의 연구, 회고와 전망」, 『조계종단의 개혁과 정화의 제 문제』, 중대기획, 2018.

2) 출범 초창기에는 ‘비구니 정혜도량’이라는 명칭을 썼지만, 그 당시 불교계 언론에서 ‘정혜도량’으로 보도하였기에 정혜도량으로 통일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3) 그 계기는 명성(운문사 회주)의 논고 집필과 묘엄(봉녕사 학장) 삶의 구술사 증언 채록 작업(2019~2021)이었다. 김광식, 「운문사 사격과 명성의 불교 인문정신」, 『정토학연구』 26집, 2016.

기를 당부한다. 미진한 점은 지속적인 연구로 보완하고자 한다. 필자의 이 글은 정혜도량의 개요 정리에 머물렀지만,⁴⁾ 이를 토대로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가 나오길 기대한다.

II. 정혜도량의 출범

94년 종단개혁 당시 조계종단 내부의 개혁을 지향하는 비구니들의 단체이었던 정혜도량은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계기로 출범을 하였는가에 대해 살펴 보겠다. 비구니들은 종단개혁이 구체화 되었을 때, 그 일선에서 활동을 하였다. 비구니들이 치열한 활동을 한 결정적 계기는 1994년 3월 23일, 중앙승가대에서 결성된 범종추(범승가종단개혁추진회, 8개 단체)에 소속된 단체의 회원에 비구니가 있었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비구니들이 소속된 단체는 중앙승가대 학생회, 전국승가대 학인연합, 석림회 이었다. 범종추의 비구니들은 구종법회(3.26~29)와⁵⁾ 승려대회(4.10)에 적극 참가하였다. 종단개혁 활동에 참여한 승려들의 공양과 간병을 책임지고, 공권력과 대응을 하였던 시위의 최일선에서 활동하였다.⁶⁾

이제부터는 정혜도량의 출범에 대해 살펴보겠다. 우선 출범을 보도한 당시 기사의 내용을 제시한다.

전국 비구니 스님들이 개혁불사에 적극 동참할 것을 천명하고 나섰다. 비구니 스님들의 개혁 의지를 단일창구화 한 「비구니 정혜도량」(회장·계수) 창립 법회가 지난 9일 전국 강원과 선원의 5백여 비구니들이 참석한 가운데 삼선포교원에서 봉행됐다.

비구니 정혜도량은 ▷ 중현 종법과 개혁회의 내에서 비구니 지위와 위상 정립 ▷

-
- 4) 탁연은 『비구니』 29·30합호(전국비구니회, 2011)에 기고한 「교단내 비구니 위상 정립을 위하여」에서 정혜도량의 존재, 의의를 간략하게 서술했다.
- 5) 3월 26일 구종법회 직후, 단식 정진에 비구니(현오 등 5명)가 참여하였다고 전한다. 그리고 지형(청암사)은 구종법회에 참여한 비구니대학은 청암사가 유일하였다고 회고했다. 『94년 종단개혁 불사』, 조계종, 2016, p.127의 각주 175 내용. 이런 내용은 더욱 확인해야 한다.
- 6) 조계종 총무원, 『94년 종단개혁 백서』, 조계종 총무원 개혁불사 2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2016, p.245.

비구니 수에 걸맞는 종회의원 확보 ▷ 총무원에 비구니 부서 설치 또는 비구니 중무행정 참여를 목적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펴기로 하고 회장에 계수스님(백홍선원)을 선출했다.

이날 경과보고에서 성총스님은 종단개혁에 뜻 있는 스님들이 3·29, 4·10 법난에 대한 비구니 스님들의 소극적 태도에 대한 반성과 적극적인 개혁의지 확산, 비구니의 역할 및 위상 정립에 대해 논의하다가 개혁의 구체적인 목적과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비구니 단일창구 「정혜도량」을 창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정혜도량은 새 종단이 출범하면 단일창구 역할을 끝내지만, 이 시대에 걸맞는 수행자로서 거듭나기 위한 모임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국 비구니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2부 종단개혁과 비구니 위상정립을 위한 단일창구 출범식에서는 도법스님(개혁회의 상임부위원장)의 「종단개혁 진행과정」 주제 강의가 있었으며, 참석한 스님들은 *종단개혁 동참하여 청정승가 구현하자 *비구니 위상을 정립하여 종단통합 앞당기자 *불교 관계 악법 철폐하여 불교자주 실현하자 *3.29, 4.10 법난 유발시킨 김영삼 대통령은 공개 사과하고 최형우 내무부장관을 즉각 해임하라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선임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부회장=지광(삼선포교원장) 은우(운필암 주지) *사무처장=성총(혜국사) *연구위원장=지형(청암사 강주) *총무부장=혜강 *교육부장=상덕 *재무부장=육문 *홍보부장=일연 *사업부장=성경⁷⁾

위의 기사에 나오듯이 정혜도량은 개혁 운동이 한창 진행되던 1994년 5월 9일, 삼선포교원에서 5백여명의⁸⁾ 비구니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창립 법회를 통하여 출범하였다. 출범의 계기는 1994년 종단개혁에서 비구니들의 소극적 활동의 성찰, 개혁의지 확산, 비구니의 역할 및 위상 등에 대한 논의 등이 창립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1994년 3월 29일부터 5월 초, 종단 개혁운동의 현장이 창립의 무대이었다. 출범한 정혜도량은 비구니들이 고려하고 있는 종단개혁방안의 모색 및 추진을 하는 단일창구로서의 위상을 지향하였다. 출범 법회에서

7) 『불교신문』 1994.5.18, 「개혁비구니회 ‘정혜도량’ 출범」, 『주간불교』 1994.5.17, 「비구니스님들 개혁에 적극 참여」에도 상세하게 보도하였다. 정혜도량의 재무부장, 개혁회의 의원, 전국비구니회장을 역임한 육문은 자신이 작명을 하였다고 필자에게 증언하였다. 정혜도량의 명칭에 대해 회장인 계수는 “부처님을 닮으려는 수행승들이 모인 도량이라 해서 정혜도량이라 이름했습니다”고 발언하였다. 『불광』 236호(1994.6), p.35, 「계정혜 三學으로 밝히는 ‘비구니 정혜도량」

8) 『법보신문』 1994.5.16, 「비구니스님들 개혁동참 선언」에서는 6백여 명이 참가했다고 나온다.

비구니들은 3개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그는 비구니 위상을 정립하여 종단 화합을 앞당기자, 불교 관계악법 철폐하여 불교 자주화 실현하자, 3·29와 4·10 법난을 유발시킨 김영삼 대통령은 공개 사과하고 최형우 내무부장관을 즉각 해임하라 등이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정혜도량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글을 제시하겠다. 이는 창립을 완료하고 『불교신문』의 광고를 통해 알린 내용이다.

비구니 정혜도량 창립을 알리는 글⁹⁾

구도의 일념으로 진행됐던 역사적 구종법회는 이제 종단 개혁의 도도한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정법을 토대로 하여, 밖으로는 권력으로 부터 종단의 자주성을 확립해 나가야 하고, 안으로는 청정하고도 민주적인 종단을 운영해 승풍을 올바르게 세워 나아가야 할 커다란 과제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종단의 절반을 차지하는 우리 비구니 스님들이 종단 개혁불사에 함께 하지 않는다면 종단개혁은 절반 밖에 되지 않을 것임을 자각한 비구니 스님들을 중심으로 하여 몇 번의 준비 모임을 가진 다음, 지난 5월 9일 삼선포교원에서 5백여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구니 정혜도량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원로 비구니 스님들을 모시고 수행, 교육, 포교, 복지 등 여러 분야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연구 활동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교개혁 불사에 부응하여 이번에 비구니 위상 정립을 위해 비구니 스님들의 중지를 모으는 단일 창구의 역할도 맡게 되었습니다.

전국 각 분야에서 정진하고 계시는 비구니 스님들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구니 정혜도량 단일 창구를 통해 미래의 바람직한 수행자로 사회의 지표가 될 좋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창립법회에 동참하셨던 분들께 감사드리고 미처 연락드리지 못한 스님들께 서도 뜻을 함께 하실 분들은 정혜도량 사무실로 회원 가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 5월 일

비구니 정혜도량 회장 계수 합장

정혜도량 사무실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조계사 정화회관 2층

9) 창립 취지문이 있었다고 전하는데, 필자는 그를 입수하지 못했다. 내용은 이 글과大同小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주간불교』 1994.5.17, 「비구니 스님들 개혁에 적극 참여」에 창립 취지문의 일부 내용이 나온다.

위와 같은 글에서 정혜도량의 정체성, 창립의 배경, 지향 노선을 알 수 있다.¹⁰⁾ 이와 같은 개요 및 성격은 앞서 제시한 보도기사에 나온 내용과 같다. 여기에서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정혜도량 창립의 과정이다. 즉 어떤 과정을 거쳐서 창립, 출범에 이르렀는가 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혜도량이 밝힌 아래의 경과보고가 주목된다.

1994. 4. 26. : 종단개혁에 뜻을 함께 하는 비구니 스님들이 조계사 산중다원에서 모임
4. 28. : 개혁의원 9인 조계사 육화당에서 임시회의 개최
개혁의원 9인 개혁의지 천명
4. 29. : 강원 강사 스님 및 중강 스님 모임인 「비구니 교우회」 개혁의지 천명
5. 1. : 종단개혁에 뜻을 함께 하는 비구니 스님들이 조계사 육화당에서 모임
종단개혁의 한 부분인 비구니계의 제도 및 의식개혁에 대한 자유토론
5. 2. : 구종법회 동참스님들이 중심되어 경북 영천 백홍암에서 모임
선원 대표 강원 대표를 중심으로 모여 63인 개혁의지 천명
5. 6. : 백홍암에서 출범하게 된 비구니 정혜도량이 전국 비구니 스님들의 개혁의지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식적 단일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국비구니회 회장님과 제방의 여러 대중스님들로부터 적극적인 찬성과 격려를 받음
5. 7. : 전국비구니회 임원진 스님들로부터 비구니 정혜도량이 「공식적 단일창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천받음
5. 9. : 비구니 정혜도량 창립법회 거행¹¹⁾

이와 같은 경과보고에서 정혜도량의 출범의 경과를 파악할 수 있다. 위의 내용에서 주목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단개혁에 뜻을 모아 조계사 산중다원에 모인 일단의 비구니(13인)와¹²⁾

10) 『대중불교』 140호(1994.7), 「비구니스님들의 거듭나기 ; 스스로 주체로 세워야 진정한 평등 법문이 선다」 참고.

11) 비구니 정혜도량, 『제2회 비구니 의식개혁 세미나 자료집』, 1994, p.6, 「비구니 정혜도량 경과보고」. 1994년 6월 18일, 불교방송국에서 열린 세미나이었다.

12) 『94년 종단개혁 백서』, 조계종 총무원 개혁불사 2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개혁회의(1994년 4월 19일 출범) 의원이었던 비구니 9인의 개혁의지의 천명이 추동력이 되었다. 13명이었던 ‘일단의 비구니’로 지칭된 대상자와 개혁회의(1994.4.22.~11.9) 비구니 의원(9인)이 정혜도량 출범의 핵심 주역이었다. 개혁회의 의원으로 초창기(94.4.18 선정)에 참여한 비구니(출신, 활동)는 다음과 같다.

▷ 개혁회의 의원(9인)¹³⁾

선원 출신 ; 계수(천개사, 백흥선원), 육문(은해사, 백흥선원)

교수 출신 ; 홍륜(운문사), 일연(봉녕사), 지형(청암사), 효탄(동학사), 수경(삼선승가대)

포교 출신 ; 자민(연대선원), 혜조(관음사, 불교인권위원회)¹⁴⁾

▷ 개혁회의 의원(9인) 활동 분과 및 상임위원(2인)¹⁵⁾

법사 분과 ; 혜조

교육 분과 ; 홍륜, 효탄, 일연, 지형, 수경

사회복지 분과 ; 육문, 계수

호법 분과 ; 자민

상임위원 ; 지형, 육문

위에서 나온 개혁회의 의원을 정혜도량 출범의 주체로 볼 수 있다. 개혁회의 의원을 선출한 과정은 파악하지 못하였다. 개혁회의 의원이면서 상임위원이었던 지형과 육문이 핵심 주역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의 개혁의원 중에서 효탄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이 사퇴하고 5월 3일자로 성총(혜곡사), 성정(운문사), 묘순(삼선승가대)이 위원에 선임되었다.¹⁶⁾ 추후에는 위원이 초기에 교체된 연유,¹⁷⁾ 4월 26

2016, p.245.

13) 『불교신문』 1994.5.3, 「개혁회의 개혁의원 99명 확정」; 『주간불교』 1994.4.26, p.2, 「조계종 개혁회의 의원 및 소임자 명단」; 『94년 중단개혁 백서』, 총무원, 2016, p.172.

14) 혜조는 중단개혁 당시에는 기획조정실의 사무국장이었다. 그 이후, 실천불교승가회에서 활동(인권위원장, 부의장, 공동대표 등)을 하였다. 이들 9명은 4월 22일, 제1차 개혁회의 회의에는 참가하였다. 조계종 제1차 개혁회의 회의록의 점명부에 이들이 서명한 것이 전한다.

15) 『94년 중단개혁 백서』, 2016, p.186. 제1차 개혁회의, 4월 22일에 결정되었다.

16) 1994년 5월 3일, 보궐로 개혁회의 의원이 된 명단에 성총, 성정, 묘순 등 3명의 비구니가 나온다. 박부영, 『불교신문으로 본 조계종단 50년사』, 불교신문, 2012, p.385. 필자는 이에 대한 전후사정을 파악하지 못했다.

일 조계사 산중다원에 참가한 비구니 13인이 모인 배경, 과정 등을 살펴야 한다. 산중다원의 모임의 개요는 그 당시 개혁을 지향한 비구니들이 작성한 문건에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

중단개혁에 뜻을 함께 하는 비구니 1차 모임

- 일시 : 1994년 4월 26일 화요일 오후 3시 - 오후 6시
- 장소 : 조계사 산중다원
- 모임 목적 : 중단개혁에 발맞추어 비구니계의 역할 및 위상정립 문제 논의
- 1차 모임 동참자 : 자민스님, 선중스님, 승현스님, 성덕스님, 수경스님, 지운스님, 재범스님, 혜성스님, 명준스님, 목산스님, 성총스님, 동조스님, 혜조스님(이상 13인)¹⁸⁾

즉 위의 내용에서 산중다원 모임의 개요를 파악할 수 있다. 이 모임에서는 모임의 목적에 대한 자유토론을 하였다. 그 토론에서 중단개혁에 앞서 비구니 의식 개혁 필요성, 의식개혁의 방법,¹⁹⁾ 종헌 중법의 연구팀 가동이 제안되었다.²⁰⁾ 그리고 사태의 긴급성을 인식하고 현안 도출을 하였다. 이 내용은 정혜도량 출범, 과정에 중요하기에 그 원문을 제시한다.

- 비구니 개혁의원 9명에게 개혁의지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우선 처리해야 할 현안 3건

<1> 강원 강사 스님 및 중강스님 정기모임 ‘비구니 교우회’에 참석하여 개혁의지 천명하기로 함.

한편, 이에 대해 개혁회의 상임위원, 정혜도량 재무부장이었던 육문(비구니회장 역임, 군위 범주사)은 초기에 개혁회의 의원 교체자는 효탄, 자민, 계수이었을 것으로 필자에게 발언했다. 2020년 11월 13일, 군위 범주사에서 인터뷰. 필자가 효탄에게 문의하였더니, 자신은 분명히 초기에 탈퇴하였다고 인정했으나, 다른 2명은 기억에 없다고 했다.

- 17) 특히 정혜도량 대표이었던 계수의 퇴진은 이해할 수 없다. 필자는 계수의 인터뷰 요청을 하였으나, 만나지 못했다.
- 18) 당시 비구니들이 기록한 「NO.1 비구니 개혁일지」에 나온 내용이다.
- 19) 소모임, 설문조사, 세미나가 거론되었다.
- 20) 위의 「NO.1 비구니 개혁일지」

- 94년 4월 29일 오전 10시 삼선포교원
- 담당 : 비구니 개혁의원들
- <2> 선원 수좌대표 모임에 참석하여 개혁의지 천명하기로 함.
 - 94년 5월 2일
 - 월요일 경북 영천 백홍암
 - 담당 : 성총스님 외 다수
- <3> 비구니 위상과 역할 정립을 위해 ‘중헌종법 연구팀’ 발족 시급
 - 강원, 선원, 승가대, 동국대, 포교위 등에서 포괄적으로 선정되어 설문 문안 작성으로 들어가야 함.
- 개혁의지의 원만한 성취를 위해 개혁회의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줄 개혁위원
 - 담당 : 혜조스님²¹⁾

위의 자료에 정혜도량 출범 직전의 과정, 고민, 지향 등이 잘 나와 있다. 당시 그 모임에 참석한 비구니들은 5월 2일, 백홍암에 모이기로 결정하였다. 이날, 결정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진행되었기에 산중다원의 모임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집회이었다.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일단의 비구니 22명은 5월 1일 조계사 육화당에 모여 개혁의지를 구현하였다.²²⁾ 이들이 어떤 대상자들이었는지, 그날 논의한 내용은 알 수 없다. 이 모임은 ‘중단개혁에 뜻을 같이 하는 비구니 2차 모임’으로 칭해졌다. 추측하건대 백홍암 모임을 앞두고 제반 문제를 점검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중단개혁에 참여한 수경은 당시 토론회에서 ‘중단개혁에 동참했던 젊은 비구니 23명’이라고 발언하였는데,²³⁾ 여기에서 나온 23명은 ‘비구니 2차 모임’의 22명을 지칭하는 것이라 필자는 본다. 하여튼 정혜도량을 출범시킨 과정, 주체, 실무자 등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요청된다.²⁴⁾

21) 위와 같음.

22) 필자가 입수한 「중단개혁에 뜻을 함께하는 비구니 2차 모임」 문건에는 그 대상으로 22명이 나온다. 그들은 혜조, 효탄, 해만, 혜도, 동조, 월, 승헌, 선중, 혜성, 목산, 지운, 선오, 대현, 원상, 진명, 현명, 유승, 법장, 유진, 재범, 수경, 성덕 등이다.

23) 『대중불교』 141호(1994.8), p.28, 「기획좌담 ; 비구니 정혜도량의 행보」. 수경은 23명으로 발언하였다. 대상자는 22명인데 수경이 23명으로 발언한 것인지는 확인할 내용이다. 필자는 22명으로 본다.

24) 이에 대한 내용은 다양한 증언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 필자는 실무 역할을 한 대

둘째, 종단개혁에 적극 참여하여 비구니들의 개혁의지를 구현한 주체들은 은해사의 산내 암자이면서 비구니 선원이 있었던 백홍암에서 모임을 갖고 개혁의지를 천명하면서 정혜도량 출범을 결의하였다. 백홍암에 모인 비구니들은 63명이었는데,²⁵⁾ 필자는 그들의 출신, 성격은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백홍암 모임에 대한 개요는 당시 개혁 주체의 비구니들이 정리한 문건에서 찾을 수 있다.

종단개혁에 뜻을 함께 하는 비구니 3차 모임

- 일시 : 1994년 5월 2일 월요일 오후 1시- 오후 5시
- 장소 : 경북 영천 백홍암
- 모임 임시명칭 : 백홍모임
- 모임 목적 : 비구니 위상 정립 및 정토구현
- 비상시 모임 목표 : 종단개혁을 위한 공식 창구 만들기
- 3차 모임 동참자 : 63인(명단 별도 첨부)²⁶⁾

위와 같은 개요에서 열린 백홍암의 모임에서 비구니들은 다양한 토론을 하였다. 자유토론에서는 모임에 대한 문제(명칭, 자격 규정, 구성원 조직 기구), 개혁행보에 대한 문제(설문조사, 공개 세미나)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하였다.

○ 개혁 행보에 있어서 선결해야 할 현안 문제들

- <1> 개혁종단의 중헌 중범상에 명시될 수 있는 비구니 위상 정립의 다양한 근거를 연구하여 제안할 것(개혁 준비기에 보조 맞출 수 있어야 함 - 앞으로 1개월)
- <2> 모임 명칭 확정 시급

상자는 지운, 승헌, 혜조, 수경 등이라는 것만 당시 참가자의 증언에 의해 확인하였다

25) 필자는 관련 문건을 승헌(정혜도량, 홍보국장)에게서 입수하였다. 그들은 계수, 효탄, 법장, 성정, 계호, 명영, 일연, 혜도, 묘순, 지광, 능현, 육문, 영운, 사우, 도경, 혜강, 해만, 탄형, 대우, 대웅, 지형, 혜정, 상덕, 석현, 효성, 동우, 담경, 원각, 성원, 도림, 무진, 래원, 흥인, 선경, 윤진, 혜우, 혜조, 경원, 벽암, 대원, 정현, 혜조, 승헌, 선중, 유진, 재범, 지운, 목산, 동조, 월(月, 대원암), 선오, 대현, 원상, 진명, 현영, 유승, 수경, 성덕, 희건, 명준, 수문 등이다.

26) 「NO 3. 비구니 개혁일지」

<3> 94년 5월 6일 승가사 모임에 동참하여 개혁의지 모으자

<4> 창립 법회 준비의 건

- 장소 : 삼선승가대학 94년 5월 9일 오후 1시²⁷⁾

위와 같이 백홍암의 모임에서는 구체적, 실질적 개혁행보를 결정하였다. 모임에서는 명칭,²⁸⁾ 목적(위상 정립 및 정토구현),²⁹⁾ 자격, 비상시 사업(설문조사, 세미나 개최), 성격(단기 = 단일창구, 장기 = 비구니 위상 정립 및 사회 역할 마련), 조직 기구 등에 대한 결정을 하였다.³⁰⁾ 이는 곧 정혜도량의 출범으로 이어졌다. 여기에서 필자는 정혜도량 출범을 주도한 인물들의 성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 A) 조계사 산중다원에 회합한 13명, 22명
- B) 개혁회의 의원 9명
- C) 백홍암에 모인 선원 및 강원 대표 등 63명

이와 같은 그룹별의 비구니들이 핵심 주체이었다. 필자가 정혜도량의 주체로 칭하였던 위의 A · B · C 그룹의 인물은 상호 중복되었을 것이다. 하여튼 정혜도량을 출범케 한 주역들에게 대한 분석은 필자의 후일 연구로 남기고자 한다.

셋째, 정혜도량은 창립 법회를 하기 직전에 전국비구니회로부터 지지를 받고, 비구니들의 종단개혁의 ‘공식적인 단일창구’로 승인을 받았다. 즉 5월 6~7일 정혜도량은 전국비구니회로부터 지지를 받음과 동시에 공식적 단일창구라는 위상

27) 위와 같음.

28) 법계도량, 원용도량, 청림도량, 초석도량, 청정도우회, 청정승가회, 법림승가회, 청정도립회 등의 명칭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삼선암에서의 창립총회 직전 자료인 ‘법림승가회 창립 법회’라는 문건이 있는바, 이를 보면 창립 직전에는 ‘법림승가회’로 명칭이 정해졌다. 그런데 어떤 과정을 거쳐 ‘정혜도량’이 되었는지는 후후 조사되어야 한다.

29) 정토구현을 위한 통일, 인권, 환경, 복지 등을 거론하였다.

30) 「NO 3. 백홍모임 경과 보고 2」. 회의 보고서에는 조직 기구표가 제시되었다. 그는 고문단, 회장, 운영위원(모임 단체장급), 사무처장, 자문위원, 연구위원, 부서장(기획실, 총무, 재무, 홍보, 교육, 사업) 등이었다. 각 직위에 내정 비구니들의 법명이 나온다. 회장 임기는 2년 초선일 때에만 대중의 중지에 의해 재임 가능의 표현이 나온다.

도 인정받았다. 이에 대해서는 정혜도량이 정리하여 밝힌 아래의 문건 내용이 참고된다.

- ▶ 전국비구니회로부터 <첫번째 인정> : 비구니 정혜도량 - 「공식적 단일창구」로 인정
 일시 : 1994년 5월 6일 금요일 오후 6시
 장소 : 승가사
 대중 : 전국비구니회 회장, 비구니 정혜도량 회장과 간부진 및 기타 비구니 대중스님 100여명
 인정 경위 : 백홍암에서 출범하게 된 비구니 정혜도량이 전국 비구니를 대표하는 「공식적 단일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국비구니회 회장 및 임원 스님과 제방의 여러 대중스님(백여명)들로부터 적극적인 찬성과 격려를 받음.

- ▶ 전국비구니회로부터 <두번째 인정> : 비구니 정혜도량 - 「공식적 단일창구」로 인정
 일시 : 1994년 5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 : 승가사
 대중 : 전국비구니회 임원 중진스님 및 비구니 정혜도량 간부진(특히 5월 6일에 만나오신 분들 참석)
 인정 경위 : 전국비구니회 임원 중진스님들에게 5월 6일 있었던 모임의 내용과 공식적인 비구니 단일 창구 역할에 임할 「비구니 정혜도량」의 사명감을 밝히고 다시 한번 절대적 지지 속에서 인정받았음.³¹⁾

이와 같이 5월 6~7일, 승가사에서 전국비구니회의 간부진과 정혜도량의 주도 인물이 대화를 하였다.³²⁾ 그 결과 전국비구니회는 정혜도량을 절대적인 지지와 함께 「공식적 단일창구」로 인정을 하였다. 정혜도량은 창립 법회에서도 재차 자신들이 「공식적 단일창구」로 세 번째로 인정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다. 이는 출범 법회의 사정을 전하는 기록인데, 기록의 대중화를 기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 전문을 제시한다.

31) 비구니 정혜도량, 『제2회 비구니 의식개혁 세미나 자료집』, 1994, pp.7-8, 「비구니 정혜도량 - 「공식적 단일창구」로 출범 ; 비구니 정혜도량이 「공식적 단일창구」로 인정받게 된 경위 설명」

32) 당시 비구니회장은 해준 이었다. 해준은 1985년 9월 5일 4대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1989년 4월 16일에 5대 회장으로 재추대되었다.

▶ 전국비구니회로부터 <세번째 인정> : 비구니 정혜도량 창립 -「공식적 단일창구」로 공식 인정

일시 : 1994년 5월 9일 월요일 오후 1시

장소 : 삼선승가대학

대중 :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비구니 스님 대중 500여명

인정 경위 : 창립 법회를 1부 2부로 진행하면서 대중스님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음. 창립법회 1부 - 경과보고를 통해서 비구니 정혜도량의 창립 배경을 설명하고 대회사, 창립 선언문을 통해 「비구니 정혜도량」의 창립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함.

창립법회 2부 - 종단개혁과 비구니 위상 정립을 위한 단일 창구 역할을 비구니 정혜도량에서 전국비구니회로부터 위임받아 출범하게 되었음을 천명하고 참석 대중으로부터 개혁 중지를 모았음.³³⁾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정혜도량의 창립 법회에서도 종단개혁을 추진하는 비구니들의 공식적인 단일창구로 공인받았다. 즉 정혜도량은 종단개혁에 비구니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공식적인 단체라는 위상을 부여받았다. 창립 법회를 할 무렵, 정혜도량은 임원진과 연구위원회를 가동시켰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임원진

회장 ; 계수(백홍선원, 연구위원)

부회장 ; 은우(윤필암 선원 도감, 연구위원)

지광(삼선승가대 학장)

사무처장 ; 성충(혜국사 주지)

사무차장 ; 해인(신흥사 주지)

연구위원장 ; 지형(정암사 학장)

연구차장 ; 계호(운문사 강사)

기획실장 ; 성덕(방생선원 주지, 기획위원)

기획차장 ; 수경(삼선승가대 중강)

총무부장 ; 해강(청운사 주지)

총무국장 ; 지운(장안정사 주지)

재무부장 ; 육문((백홍선원 도감, 연구위원)

재무국장 ; 해성(백련사 주지)

33) 위의 정혜도량 세미나 자료집, p.8.

홍보부장 ; 일연(동학사 학장, 연구위원)
 홍보국장 ; 승현(혜진선원 주지)
 교육부장 ; 상덕(청암사 강사, 연구위원)
 교육국장 ; 대현(정암선원 주지, 연구위원)
 사업부장 ; 성정(운문사 강사)
 사업국장 ; 흥인(통일암 주지)

▶ 연구위원회

연구위원장 ; 지형(청암사 학장)
 연구차장 ; 계호(운문사 강사)
 연구위원 ; 황영운(영운정사 주지), 본각(중앙승가대 교수), 해주(동국대 교수), 묘주(동국대 강사), 대우(봉녕사 강사), 혜도(중앙승가대 강사), 성학(혜곡사), 묘순(삼선승가대 강사), 혜원(동국대 교수), 계환(동국대 교수), 대원(경주 불교대 교수), 원상(당진포교원 주지), 효탄(동학사 중강), 종민(운문사 중강), 종실(대전 법등종합복지관장), 혜조(개혁회의 기획조정실),³⁴⁾ 재범(충무원 포교국장), 선오(복지대원사 주지)

위와 같은 정혜도량의 집행부는 출범하였다.³⁵⁾ 회장으로 계수를³⁶⁾ 비롯한 임원진과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정혜도량은 본격적인 종단개혁이라는 운동에 뛰어들 준비를 마쳤다.

III. 정혜도량의 활동

종단개혁 당시, 비구니의 중심 주체 및 단일창구라는 위상을 갖고 출범한 정

34) 기획조정국장의 소임을 보았다.

35) 그런데 『주간불교』 1994.5.17, 「비구니스님들 개혁에 적극 참여」에는 운영위원장 혜장, 선원장 영운, 교무부장 상덕이라고 나온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36) 『월간 해인』 148호(1994.6), 「호계삼소 ; 정혜도량 혜수스님」에 혜수의 출가, 수행, 종단개혁 참가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그리고 『불광』 236호(1994.6)에도 「창립 20주년 연속대담 ; 계·정·혜 삼학(三學)으로 밝히는 ‘비구니 정혜도량」에는 혜수의 정보(당시 51세·법랍 33년, 도봉산 원효사 출가, 운문사 강원, 선원 30년 수행, 개혁 참여 동기, 정혜도량 성격 등)가 나온다.

혜도량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준비를 하였다. 정혜도량 동력의 근본은 전국 비구니들의 후원, 참가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정혜도량은 그들을 지지할 기반을 구축하는 목적에서 회원 모집에 나섰다. 당시의 회원 모연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비구니 정혜도량은 역사적인 조계종 개혁에 즈음하여 구종법회에 동참했던 많은 스님들이 지난 94년 월 일 백홍암에 모여서 자연스럽게 출범을 하게 된 단체입니다. 종단개혁에 즈음하여 전국의 강원·선원·승가대·포교당의 뜻 있는 스님들이 모여 결성된 정혜도량에서는 종단의 온전한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구니 스님들의 의식 개혁과 제도 개혁이 아울러 병행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종단개혁과 비구니의 바람직한 성직자 정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키로 하였습니다.

1600여 년의 한국불교 역사 속에서의 비구니의 위상은 「이부승단」이라는 울장의 벽에 막혀 종단과 사회를 위해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급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 부응하는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과 사회 속에서 서야 할 위치와 위상은 우리 비구니 스님들 스스로가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공감하게 되어 어느 누구의 특정 주장이 아닌 상황에서 비구니 정혜도량이 결성된 만큼 이러한 단체의 출현은 시대의 요청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혜도량」은 비구니의 ‘위상정립과 정토구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종단에는 비구니 스님들의 단합된 의지를 천명할 수 있는 대표적 공식 창구이기 때문에 우리의 위상을 참신한 수행인으로 정립하는데 의견이 있으신 분은 누구라도 비구니 정혜도량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뜻을 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한국불교 역사 속에서 비구니 스님들의 참된 뜻을 한 목소리로 묶어낼 수 있는 대표적 공식 창구가 생기게 되었음은 오직 그동안 전국의 비구니 스님들이 말 없는 가운데 각자의 말은 바 위치에서 묵묵히 수행해온 힘이 바탕이 되었음을 자타가 공인하는 바 일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비구니 스님들의 뜻을 비구니 정혜도량을 통해 하나로 묶어 종단 사회 속에 펴고 불법을 흥포하여 나라와 민족 번영에 이바지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제방의 여러 스님들께서는 우리 비구니 스님들의 바람직한 성직자상을 함께 도모하면서 사회의 정신문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정혜도량의 노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시어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비구니 정혜도량 회원 모연문을 올립니다.

어질고 슬기롭게
비구니 정혜도량³⁷⁾

위의 모연문에 정혜도량 출범의 배경, 당위성, 노선, 이념 등이 상세하게 나온다. 이렇게 정혜도량은 제반 준비를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첫 번째의 사업은 비구니 위상 정립을 위한 대토론회이었다. 5월 29일에 열린 토론회의 개요는 아래의 보도기사에서 찾을 수 있다.

비구니스님들이 적극적인 종단참여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5월 9일 공식 출범한 비구니 정혜도량(회장·계수)은 지난 달 29일 중앙승가대 정진관서 토론회를 갖고 “비구니의 위상정립을 위해서는 자체 의식개혁과 함께 중무행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비구니 스님들이 스스로의 위상문제를 주제로 개최한 최초의 토론회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또 참여스님들이 총무원·본사·종회 등에 적극 참여해야 됨을 역설하고 나섬으로써 종헌·종법 제정시 반영 여부에 따라 종단 역학구조에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비구니 의식개혁과 교단내 위상정립」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정혜도량 부회장 지광스님(삼선승가대학장)과 연구위원 대우스님(봉녕사승가대 강사)은 기초발제를 통해 “비구니의 중무행정 참여가 철저히 배제된 것은 비구들의 차별의식과 이에 따른 종단내 비민주적 제도운영 때문”이라고 질타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지광스님은 「비구니의 의식개혁」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비구니의 올바른 위상은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실천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비구니 스스로의 의식개혁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스님은 그러나 비구니 스님들이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은 「비구니 8경계」가 불평등한 승가의 전통 관습을 고수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왔기 때문이므로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단내 비구니 위상정립」을 발표한 대우스님도 “인재활용과 교세확장 등 교단적 이익과 상호발전이라는 역사적 관점에서 비구니의 종단참여는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월 실천 승가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비구니스님의 종단운영 참여 확대」에 대해 재가자를 포함한 응답자의 72.5%가 ‘찬성’을 표명하고 있으나 현실은 그러지 못함을 지적하고 “중무행정에 폭넓은 참여나 교구본사에서의 직접 참여는 교단내 비구니 위상을 정립하는 핵심적 과제”임을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개혁회의 총무원 부원장 지하, 실천승가회 종단개혁위원장 효림, 동국대 교수 해주스님과 중앙승가대 교수 본각, 운문사승가대 강사 성정스님 및 동국대 불교학과 운영해교수, 동국대 불교대학원 이해숙강사는 비구니 스님들의 중무행정 참여는 부처님 사상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할 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도 이를 요구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효림스님은 종단참여가 비구에 대한 역학관계 또는 숫적 우세로 제기되어서는 안 되고 먼저 능력

37) 이 모연문은 비구니 정혜도량, 『제2회 비구니 의식개혁 세미나 자료집』, 1994, p.12에 게재되어 있었다.

있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체 역량을 키웠는가를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주스님과 윤영해·이혜숙 교수 등이 8경계법이 대승불교권에서 소승계율을 고집하는 한국 현실을 지적하며, 재고의 필요성을 제기한데 대해 지하스님은 8경계가 비불설이라고 해서 배제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비구니 위상이 정립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관입을 피력했다. 이번 토론회는 방청석에서도 질문과 토론이 오고나 비구니 스님들의 중단참여가 매우 깊은 관심사임을 보여줬다. 정혜도량은 계속해서 제2회 의식개혁 세미나를 「비구니의 포교·종단·사회·교육역할」을 주제로 오는 18일 오후 1시 불교방송 3층 공개홀서 갖고 중단참여의 당위성을 알리고 자체 의식 재고를 위한 작업을 계속 펼쳐 나갈 예정이다.³⁸⁾

위의 기사에 나온 대토론회의 핵심적인 내용을³⁹⁾ 개조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시 ; 5월 29일

장소 ; 중앙승가대 정진관

발제자 및 제목 ; 지광(삼선승가대 학장) - 비구니의 의식개혁

대우(봉녕사 강사) - 교단 내 비구니 위상정립

논평자 ; 지하(개혁회의 부원장)

효림(실천승가회 중단개혁위원장)

해주(동국대 교수)

본각(중앙승가대 교수)

성정(운문사 강사)

수경(삼선승가대 강사)

재범(총무원 포교국장)

윤영해(동국대 강사)

이혜숙(동국대 강사)

위와 같은 개요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열띤 논쟁하에 진행되었다. 토론회에서 비구니들은 비구니 위상 제고를 위해서 종단 내에서의 불평등을 지적하고, 이번 기회에 비구니의 참정권이 강조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그러나 비구 측 승려들은 대체적으로 아직은 시기상조이기에 비구니들의 역량 강화를 주문하였다. 발

38) 『불교신문』 1994.6.15, 「비구니 정혜도량 중단행정 적극참여 표명」

39) 『주간불교』 1994.6.7, 「종무행정 폭넓은 참여가 핵심과제」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다.

제된 주제에서 대우의 주장은 당시 『불교신문』에 집중 소개되었다. 대우의 주장은 「불교의 기본정신은 평등사상」이라고 요약되었고, 그에 대응하여 반박의 주장을 편 법혜(동국대 교수)의 주장은 「전통의 껍질에서 울 지켜야」라는 내용으로 소개되었다.⁴⁰⁾

정혜도량은 6월 18일에 두 번째 토론회를 또 다시 개최하였다. 이때에는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었다. 그를 보도한 기사를 우선 제시한다.

종단과 사회에서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지난 달 29일 대토론회에 이은 「종단개혁 및 사회적 역할 모색을 위한 비구니 의식개혁 세미나」가 바로 그것으로 18일 불교방송국 공개홀에서 개최됐다. 비구니 정혜도량(회장·계수)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종실스님(대전 범동종합사회복지관장)이 「비구니의 포교 역할」, 묘주스님(동국대 강사)이 「비구니의 종단 역할」, 혜도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이 「비구니의 사회 역할」, 성정스님(운문사 강사)이 「비구니의 교육 역할」을 각각 발표했다. 덕신스님(원심회 회장), 상덕스님(청암사 강사), 유성무(중앙대 교수), 법산스님(동국대 교수)등이 참여한 토론에서는 각 분야에서의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세미나에서 묘주스님은 석존의 연기사상과 초기교단의 구성 원리, 비구니 숫자가 재적승려의 총인원의 44% 차지, 현대사회의 핵가족화로 전문직 여성인력 증가, 비구니 종단운영 참여여론 비등 등의 이유를 들어 비구니 스님들의 종단참여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포교에서는 비구니 스님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고 밝힌 종실스님은 비구니 스님들이 참여할 있는 중요한 포교 방면은 태교, 유아교육, 어린이 법회 등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胎敎에 대해 스님은 “여성들이 아이를 잉태했을 때의 불안은 대단한 것”이라면서 “화엄경의 보현행원품을 현대화하여 번역한 보현행자의 서원을 임신부에게 적극 권장하여 항상 수지 독송케 하면 지혜와 복덕이 구축하고 원력이 수승한 태아를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구니 스님들의 사회역할에 대해 혜도스님은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불교복지」라는 용어가 일반화 되고 있지만 불교복지와 사회복지와의 개념적 구분에 관한 연구가 깊이 있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와 아울러 스님은 불교가 사회복지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불교의 근본사상인 자비사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종단의 교육방침에 입각해 비구니의 교육역할을 발표한 성정스님은 행자교육, 사미니교육, 비구니 교육, 재교육으로 나누어 개선점을 제시했다. 특히 비구니 교육

40) 『불교신문』 1994.6.8, 「비구니 '교단 운영' - 확대 요구 이렇게 본다」

항목에서는 지방 승가대학 교육, 수의과와 특수 교육원 설치, 동국대학교와 중앙승가대학의 교육 등으로 세분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⁴¹⁾

위에서 보도된 내용, 그리고 그 당시 배포된 세미나 자료집을 종합하여 정리한 행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일시 ; 6월 18일

장소 ; 불교방송 공개홀

발제자 및 제목 ; 종실(법종종합사회복지관) - 포교의 당위성에 대한 제안
묘주(동국대 강사) - 종단 운영체제에 관한 몇가지 제안
혜도(중앙승가대 교수) - 불교와 사회복지 역할
성정(운문사 강사) - 비구니 교육 역할

논평자 ; 덕신스님(원심회 회장)

상덕스님(청암사 강사)

유성무(중앙대 교수)

법산스님(동국대 교수)

이와 같은 개요에서 진행된 세미나는 당시 종단 내외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 단적인 예증이 『대중불교』 140호(1994.7)에 「기획취재 ; 비구니 스님들의 거듭나기」라는 특집으로 상세하게 정리된 게제이었다. 『대중불교』에서는 1회와 2회의 세미나를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당시 발제자의 주장과 토론자의 의견을 요약하여 소개함으로써 기록성이 있는 글이 되었다. 그리고 『법보신문』에서도 1994년 6~7월, 3회에 걸쳐 「개혁종단 ; 비구니의 시대는 오는가」라는 특집 기사를 다루었다. 그는 ① 수면위로 떠오른 위상 논쟁 ② 위상 정립의 열쇠, 종단운영 참가 ③ 위상정립의 열쇠, 자체 한계 극복 등이었다. 이런 특집 기사들은 정혜도량의 태동, 활동에서 나온 것이었다. 요컨대 본격적으로 비구니의 위상과 종단개혁 활동에 참여의 문제가 지상으로 드러났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편 정혜도량의 활동 중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제도개혁을 위한 설문조사」 시행이다. 1994년 5월 말 경에 시행된 이 조사는 정혜도량이 주관하고, 현대리서치가 위탁을 받아 시행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설문 조사를 한 분석의 성과물을 열람하지 못하였다. 때문에 추후에는 설문 조사를 하고 발표한 문건을

41) 『불교신문』 1994.7.5, 「비구니 정혜도량 의식개혁 세미나」

입수하여 분석해야 할 것이다.⁴²⁾ 당시 『주간불교』에서는 그 전후사정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비구니 정혜도량이 전국의 사찰 및 강원 선원의 비구니들을 대상으로 지난 달부터 설문조사해 발표한 ‘제도개혁을 위한 비구니 스님 의견’은 이제까지 단 한번도 종단운영에 뚜렷한 목소리를 내보지 못했던 비구니들의 제 ‘뭉’ 찾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⁴³⁾

즉 설문조사에 반영된 내용은 종단 운영에 대한 비구니들의 뚜렷한 목소리이었다. 세부 항목에는 총무원의 종단행정 참여, 비구니 종회의원 선출, 비구니 원로회의 참여, 비구니 교구본사 설치 등이 있었다. 정혜도량의 두 번째 세미나에서 설문조사에 의거하여 발제가 이루어져졌던 것이다.⁴⁴⁾

그렇다면 정혜도량은 세미나,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비구니들의 종단참여에 대한 의견을 집약하여 어떤 행보를 갔는가. 종단개혁을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추진체인 개혁회의에 제출하였는가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필자는 그에 관련된 다음과 같은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

설문조사와 두 번의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정리 · 요약해서 ‘열린마당’에 안건으로 제출했습니다만 비구니 스님들의 개혁의지와 의견을 밖으로 끌어내어 반영시키는 데는 사실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수경 발언)⁴⁵⁾

정혜도량에서는 총무원에 비구니 별원 설치, 비구니 본말사 제도, 비구니 총림 등에 대한 방안을 총무원의 여러 창구를 통해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출가교단의 이분화와 계율 문제 등으로 현재 수용되지 않고 있습니다.(묘주 발언)⁴⁶⁾

이와 같이 정혜도량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구니들의 발언에서 종단 집행부(개혁회의, 총무원)에 의견을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문건 자료

42) 2차 세미나에서 발제한 묘주의 논고에 관련 통계가 활용되었다.

43) 『주간불교』 1994.6.28, p.3. 「제도개혁을 위한 설문조사 분석」

44) 『주간불교』 1994.6.28, p.1, 「정혜도량 비구니 의식개혁 세미나서 발표」

45) 『대중불교』 141호(1994.8), 「기획 좌담 · 비구니 정혜도량의 행보」, pp.29-30.

46) 위의 자료, p.32.

에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러면 개혁회의에서는 비구니들이 제안한 안건, 주장을 반영하였는가에 대해 살핀다. 이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단서를 찾아서 진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필자는 1994년 6월 18일 조계사 내의 정화회관에서 열린 ‘범종추 개혁성취결의 법회’ 즉 대토론회를 주목한다. 대토론회의 자료집, 개혁입법 사항의 셋째 내용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셋째, 직능직 성격의 간선의원 제도는 종단 권력 구조병폐의 큰 원인 중의 하나로서 제도 자체가 폐지되어야 한다. 다만 비구니, 선원, 강원 등 각 직능 단위 스님들을 종회에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⁴⁷⁾

이는 비구니 종회의원은 당연히 선출되어야 한다는 정서가 범종추 내에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토론회의 내용은 신문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한편, 비구니 스님들이 종회의원의 일정 부분(대략 20~30%) 진출을 전제로 한 비구스님과과의 자유 경선에 의견을 모았지만 비구스님들은 비구니의 종단 참여에 대해 아직도 상당한 견해 차를 갖고 있어 비구니 스님들과 논란을 벌였다.⁴⁸⁾

즉 비구들의 비구니 종회의원 참여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상당하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혜도량은 강령(수행정진, 도제양성, 자비실천)을 제정하고, 6월 29일에는 현관식(수송동, 원당빌딩 2층)을 거행하였다.⁴⁹⁾ 7월 초에는 심벌마크를 정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하였다.⁵⁰⁾

한편, 비구니들의 주장에 대한 종단 내부에서 개혁작업은 지난하였다. 그 정황은 1994년 7월 27일 개혁회의 6차 회의에서 단적으로 찾을 수 있다. 「개혁회의록」을 열람하여 그를 보도한 『법보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47) 『범종추 개혁성취결의 법회, 자료집』, 범승가종단개혁추진회, 1994, p.6.

48) 『주간불교』 1994.6.28, 「범종추의 종단개혁안」

49) 조계종 교육원, 『사진으로 본 통합종단 40년사』, 조계종출판사, 2002, p.236에 현관식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50) 『불교신문』 1994.7.7, 「정혜도량 심벌마크 공모」. 『주간불교』 1994.7.5, p.11, 「심벌마크 공모 비구니 정혜도량」

1994년 7월 27일 오후,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속개된 제6차 조계종 개혁회의에서 뜻하지 않은 설전이 벌어졌다. 비구니 참종권을 두고 비구·비구니 스님들 간의 공방이었다. ‘개혁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주된 안건은 총무원장 선출방식을 결정하는 중헌개정이었다. 총무원장을 직선제로 할 것인지, 간선제를 채택할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그러나 논란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불거졌다. “직선제를 도입하면 강원 학인들과 비구니들에게도 투표권을 줘야 하는데 그럴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무착스님(원로회의 사무처장)의 발언이 신호탄이 됐다. 범혜스님(동국대학교 교수)은 한발 더 나아가 오랜 세월 비구니들을 옥죄었던 ‘비구니 팔경계(八敬戒)’를 거론했다. 비구니 팔경계는 ‘100세 비구니일지라도 새로 계를 받은 비구를 보면 마땅히 일어나 맞이하고 예배하라’ 등 비구니가 비구에게 지켜야 할 8가지 계율 조목이다. 비구·비구니 차별적 요소가 농후할 뿐 아니라 부처님 당시 제정된 것인지에 대한 진위 논란이 지금까지 분분한 항목이기도 하다. 범혜스님은 “비구니 교단 출현의 전제 조건은 팔경계의 실천 약속이었다”며 “비구 총무원장을 뽑는데 왜 비구니를 참석시켜야 하느냐”고 비구니들을 자극했다. 무착스님이 다시 거들었다. 스님은 “앞으로 총무원장이 되려면 비구니에게 가서 굽실거려야 할 텐데, 비구로서 할 수 있는 일이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구니 스님들의 거센 항의와 질타가 쏟아졌다. 일연스님(동학사 강사)은 “5000명 비구니들을 무시하는 말”이라며 “비구니들을 배제하고 선출된 총무원장은 결국 교단 절반 밖에 동의를 얻지 못한 총무원장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분각스님(중앙승가대 교수)도 “사회가 진보할수록 남녀평등의 문제가 대두되는데 훗날 불교가 가장 뒤처지는 종교가 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개혁회의 법안이 민주적이었다는 평가를 듣기 위해서는 총무원장을 ‘비구’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승려’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개혁회의 부의장 설조스님이 진화에 나섰다. 스님은 “이 문제는 율학을 전공한 분들과 논의를 거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비구니들의 실망감은 적지 않았다. 비록 개혁 대상이었던 의현 총무원장 체제는 벗어났지만 종단에 고착화된 ‘비구 우월주의의 벽’을 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는 순간이었다.⁵¹⁾

위의 기사에는 개혁회의 내부에서의 비구니들의 인식, 비구니 참종권에 대한 현실, 비구니가 원하는 종단개혁의 어려움 등이 집약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정서, 현실의 벽을 절감한 정혜도량은 8월 16일에 종단개혁의 중추인 범종추에서 탈퇴하겠다는 충격적인 공문을 발송하였다.

51) 『법보신문』 2014.2.18, 「권오영기자의 조계종 개혁20주년 ; 5. 종단개혁의 배경 - ④ 비구니 차별」

비구니 정혜도량(회장 계수)은 8월 16일 “개혁의지가 미미하고 비구니 위상 정립을 위해 뜻을 같이 할 수 없기에 탈퇴한다”는 공문을 범종추에 보냈다.⁵²⁾

정혜도량은 이런 입장을 9월 28일의 ‘전국비구니대표자회의’에서도 공개적으로 피력하였다. 중단개혁이 한창 추진되던 도중에 이런 행보를 간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내적인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개혁회의 출범과 함께 비구니 단일장구를 표명하며 출범했던 정혜도량(회장·계수)이 범종추 탈퇴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지난달 28일 열린 전국비구니대표자회의에 참석한 정혜도량 계수 성정 대우 일연스님 등은 이같이 밝히고 “그동안 비구니회에 속한 입장에서 회장님의 승인을 받아 개혁 작업을 펼쳐왔다”고 해명했다. 정혜도량 스님들은 또 개혁회의 활동 기간이 끝나는 10월에 수행·친목 단체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정혜도량은 이날 이 같은 의사를 표명한 후 31일 열린 개혁회의 본회의에 참석치 않았다. 개혁회의에는 9명의 비구니 대표 중 정혜도량 소속 6명의 스님이 활동해 왔다.⁵³⁾

정혜도량은 제도권 중단에서의 비구니 위상 강화를 목적으로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현실의 높은 벽을 실감하고⁵⁴⁾ 8월 16일에 범종추 탈퇴를 공문으로 전달하였다. 정혜도량 대표인 계수가 증도에 대표직을 사직하였다는 구전도 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⁵⁵⁾하여튼 정혜도량은 9월 28일에는 이를 공개적으로 선언하였다. 정혜도량은 개혁회의 활동을 중단하고, 수행 및 친목단체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은 정혜도량이 자진하여 활동을 중단하고, 퇴진의 길로 갔음을 뜻하는 것이다.

필자는 정혜도량이 내부적으로 그런 결정을 한 과정은 파악하지 못하였다.⁵⁶⁾ 그리고 개혁회의 의원으로 활동한 비구니는 당초에는 9명이었는데, 출범 초기

52) 『주간불교』 1994.8.30, 「범종추 제역할 못한다」; 한편 『범보신문』(1994.8.22)도 「비구니 정혜도량 16일 범종추 탈퇴」에서 그 정황을 보도하였다.

53) 『불교신문』 1994.10.11, 「정혜도량 범종추 탈퇴」

54) 『주간불교』 1994.8.16, 「조계종 중헌 두 쟁점; 비구니 권한문제」

55) 그 시점, 원인이 조사되어야 한다.

56) 당시 정혜도량의 재무부장이면서 개혁회의 의원인 육문스님은 필자에게 회의를 하여 그것을 결정하였다고 증언하였다.(2020년 11월 14일, 군위 범주사에서)

(94.5.3)에 3명이 교체되었다.⁵⁷⁾ 그리고 정혜도량 소속의 비구니는 6명만 개혁회의에서 활동하였다고 위의 기사에 전하는데, 중도에 3명이 자진 사퇴한 전후 사정도 확인할 내용이다. 요컨대 정혜도량 연고의 개혁의원(비구니)의 활동 내용, 도중에 퇴진한 원인도 탐구되어야 한다.

한편 여기에서 생각할 것은 정혜도량은 출범 초기에 내세운 단체 성격의 지속성의 문제이다. 즉 창립시에는 종단 출범시까지의 종단개혁에 주력하고, 그 이후에는 수행 단체로 돌아가겠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별 다른 뜻이 없이 순수한 마음에서 서로간에 탁마도 하고 후배들의 교육사업에도 힘쓴다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었는데 가만히 개혁 작업을 지켜보니까 학생들은 학생대로, 재가자는 재가자대로 전부 다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요구도 하고 역할도 맡곤 하는데 비구니들은 이것을 맡아 수렴하고 제기할 단일창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위의 어른들께 허락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 정혜도량입니다.

하지만 단일창구의 역할은 정식 종단이 출범하는 시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뜻을 박았습니다. 그 후에는 원래의 취지로 돌아가 순수한 수행과 탁마, 후배양성에 힘을 쏟을 것입니다.⁵⁸⁾

백홍암에서 정혜도량이라는 하나의 장기적인 단체를 결성하면서 1차 사업으로 단일창구 역할을 하기로 결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혜도량은 분명히 한시적인 단체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단, 단일창구 역할은 새 종단 출범시까지 한시적인 것이죠.⁵⁹⁾

위의 발언을 한 당사자는 정혜도량의 회장인 혜수와 기획차장인 수경이었다. 이 발언에서 나오듯이 종단 출범 시까지는 단일창구의 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는 수행 단체로서의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범종추에서의 퇴진은 당초에 피력한 역할을 방치한 것이었다. 퇴진 당시, 정혜도량은 성명서 발표가

57) 1994년 5월 3일, 보컬로 개혁회의 의원이 된 명단에 성총, 성정, 묘순 등 3명의 비구니가 나온다. 필자는 그 전후사정을 파악하지 못했다. 박부영, 『불교신문으로 본 조계종단 50년사』, 불교신문, 2012, p.385.

58) 『불광』 236호(1994. 6), p.35, 「창립 20주년 연속대담 ; 계정혜 삼학으로 밝히는 비구니 정혜도량」

59) 『대중불교』 141호(1994. 8), 「기획 좌담· 구니 정혜도량의 행보」, p.29.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혜도량의 퇴진 시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94년 8월 범종추에 탈퇴공문을 보낸 시점인지, 9월에 공개적인 선언을 한 시점인지, 혹은 94년 10월 25일 중앙선관위가 정한 종회의원 ‘추천위원회’(30인)에 정혜도량이 관여할 때까지인가 등의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해야 한다. 하여튼 정혜도량의 퇴진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종단개혁의 단일창구 역할을 자임하며 활동한 정혜도량의 퇴진은 많은 것을 시사케 해 준다. 종단개혁이 추진될 때, 총무원 포교국장과⁶⁰⁾ 정혜도량의 연구위원을 역임한 재범은 이에 대한 소회를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비구니 스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개혁종단 출범에 비구니의 권익 신장이 되리라는 기대도 컸고, 앞으로 열심히 포교도 하고, 수행도 하고, 후학 교육도 해야 한다는 열의에 가슴이 벅차 있었습니다. 그런 비구니 스님들의 열망과 열의, 종단에 대한 희망을 개혁회의가 충분히 수렴했는가를 되짚어 보면 그 기대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⁶¹⁾

즉, 비구니들의 기대는 전혀 충족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것이 객관적인 진실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개혁회의에서 비구니들을 적극 비호한 실천승가회의 출신이었던 청화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문 ; 총무원장 직선제도 관철이 되지 않았지만 개혁 초기에 언급되었던 비구니 참종권 문제나 재가자 참여 문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답 ; 글썄 그것도 처음에 우리가 다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 반대해서 아무 것도 안 된거예요. 비구니 종회의원도 20명으로 늘리고 직선제로 하자고 했죠. 그런데 울산스님들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 했어요. 앞으로 그런 사고도 전향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해요. 부처님 당시부터 종단 구성원을 사부대중으로 했잖아요. ... (중략) ... 그때 비구니 스님들을 위해 선본사의 운영을 맡기자고 했어요. 내가 왜 그렇게 비구니 스님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려고 했냐 하면 구종법회를 할 때 비구니 스님들이 눈물겹도록 열심히 했어요. 대열에 앞으면 일사분란하게 자리도 안 움직이고, 그렇게 장엄하게, 거룩하게 했어요. 몇 번 울을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본사 하나를 비구니 스님들에게 안배하자 했어요. 그것도 안 되고, 본사를 못 준다면 선본사를 영구히 비구니에게 주자고 했

60) 『불교신문』 1994.5.4, 「포교국장 재범스님 - 비구니로 최초 중무행정에 참여」

61) 조계종 총무원, 『재범스님(비구니) 인터뷰』, 『94년 종단개혁 백서』, 2016, p.422.

는데 잘 안되었습니다.⁶²⁾

이렇게 개혁회의 핵심 주체(범종추 공동의장)이었던 청화는 비구니에 대한 배려(총회의원 20석, 선본사 제공 등)를 주장하였다.⁶³⁾ 실제 그 당시 기록에 비구니 총회의원을 20명으로 검토되었음을 말해주는 문건이 있다.⁶⁴⁾ 그렇지만 개혁 집행부에서 반영된 것은 미약하였다.⁶⁵⁾

이제는 정혜도량의 퇴진(1994. 10) 무렵, 종단개혁 구도에서의 비구니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하는 점이 설명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관련 문건, 증언 등을 입수해서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우선 보도기사에 의지하여 그 실상을 가늠해 보겠다. 당시 개혁회의에서는 비구니 총회의원 10명을⁶⁶⁾ 비구니계(추천위원회)에서 분리 선출, 총무원장·총회의원 선거에 비구니는 불가를 결정하였다. 이런 점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 비구니들의 문제를 집중 보도한 아래의 『주간불교』 기사가 참고 된다.

62) 위의 책, p.371.

63) 선본사 주지로 비구니가 갔는데, 그는(서봉사 경희스님) 정혜도량 회원이 아니었다는 주장이 있다. 위의 책서, p.417의 동출스님 인터뷰. 강태진, 「한국불교 재가단체의 현주소」, 『불교와 문화』 2호, 1997, p.189 참조. 강태진은 비구니 20명, 재가자 4명을 총회에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서술했다.

64) 덕산, 『조계종단 개혁의 재인식』, 불교교단사연구소, 2021, p.811. 당시 개혁회의 노선을 비판했던 전국선원수좌회에서 배포한 문건(1994.8)인 「전국선원 스님들께」에 ‘조계종이 비구니 종단화하고 있습니다’의 항목의 총회의원(총 88명) 구성에 ‘직선제 52명 비구니 20명 직능대표 16명’이라고 나온다. 전국선원수좌회의 개혁회의 비판에 대한 성격은 좋고, 「94년 종단개혁의 재인식」, 『조계종단의 개혁과 정화의 제문제』(중도, 2018)의 논고를 참고하시길 바란다.

65) 청화는 종단개혁 20주년 기념 세미나의 논평에서는 비구니 총회의원 20~30명을 주장했다고 회고했다. 『불교신문』 2014.4.16, 「지상중계 ; 종단개혁 20주년 기념 세미나」; 개혁회의의 홍보실장을 역임한 현기스님도 비구니의 참여 문제에 찬성입장이었으나, 아쉬움을 표했다. 현기, 「개혁회의 평가와 종단의 방향모색」, 『선우도량』 7호, 1995, p.87.

66) 종단 개혁 이전에는 비구니 의원이 5명이었다. 그런데 비구니들이 의원 20석을 요구하였다고 전하지만(위의 책서, p.417), 지선스님은 자신이 20명 주장을 제안해서 욕을 많이 먹었다고 회고했다. 한편 현웅스님은 비구니들이 자발적으로 10석을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이 주도한 기획조정실에서 그 안을 만들어 관철시켰다고 회고했다. 위의 책서, p.327.

“兎死狗烹” 지난 구종법회 이후 비구니 스님들의 처지에 딱 들어맞는 말이다.

오늘 11월 7일과 22일 각각 예정된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와 중앙총회 의원 및 교구 총회 의원 선거를 앞두고 비구니 스님들의 참종권은 개혁시대를 맞이해서도 여전히 허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중략) ... 이에 중앙승가대 비구니회와 동국대 비구니회를 필두로 한 전국승가학인연합,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에서 잇단 성명서가 발표됐다. ... (중략) ... 선관위의 이러한 후속 조치를 도출해 내기까지는 각계의 잇단 성명 이외에도 동국대와 중앙승가대의 비구니 스님들이 비구를 포함한 총회의원 23명과 전국 강원외의 비구니 스님 8백명으로부터 전체 직선제에 관한 서명을 받아 지난 11차 개혁회의에 안건 상정 채택을 시도한 실력 과시에도 영향을 받았다. ... (중략) ... 차별조항 개정에 많은 비구스님들의 지지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요원하게만 보이는 비구니의 종단운영 참여를 위해 비구니 스님들은 총회 때마다 청원을 접수시켜 관찰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⁶⁷⁾

위의 기사 내용에는 종단개혁 후반부 당시에 노정된 비구니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다. 흥미로운 것은 본 고찰의 대상인 정혜도량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 정혜도량은 후퇴하고 동국대와 중앙승가대의 비구니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대안 제시를 하였다. 그들은 「비구니 중앙총회의원 선거권에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10.19)을 냈다.⁶⁸⁾ 이런 정황은 정혜도량이 종단개혁의 단일창구 역할을 표방한 것과는 정반대이었다. 추후,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하여 당시 상황의 재구성 및 이해가 요청된다.

하여튼 94년 종단개혁에서의 비구니의 문제(비구니 총회의원 숫자,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대한 문제는 복잡 미묘하여 심층적인 분석이 요청된다. 특히 비구니 총회의원 숫자 및 선출 방법은 매우 복잡하였다.⁶⁹⁾ 여기에서는 그에 대한 단서만을 제공한다.

67) 『주간불교』 1994.11.1, 「참종권 확보... 끝까지 관찰」

68) 『종단개혁불사 백서』, 개혁회의, 1994, p.79. 10월 19일에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중앙총회 의원 분리 선거법이 차기 중앙총회에서 전체 선거로 개정할 것, 비구니 중앙총회 10인은 비구니 전체 직선으로 선출할 것, 교구에서 선출되는 총무원장 선거인단에 각 교구별로 비구니 1인 이상이 참여 등이었다.

69) 『94년 종단개혁불사 백서』, 개혁회의, pp.206-207.; 박수호, 「사회운동으로서의 조계종 종단개혁운동」, 『동양사회사상』 11집, 2005, pp.86-87.

▷ 『불교신문』 비평

종단개혁 불사에 손과 발이 된 단체는 전승련과 중앙승가대학교가 주축이 된 학인단체였다. 당시 중앙승가대 재학생들은 종단개혁에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고, 인원 동원도 가능했다. 또한 대부분 학인스님들은 일반 강원을 졸업한 뒤 중앙승가대학에 입학할 해서 전국 승가대학 학인들과 끈끈한 유대를 확인하고 있는 상태였다.

특히 비구니 스님들의 경우는 65%가 넘게 이미 비구니계를 받은 스님들이었으며 종단개혁에 대한 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 젊은 학인들은 현재 소속 교구 본사에서 중추적인 소임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⁷⁰⁾

▷ 변호사, 입장

그중에서 비구니와 신도들 종단 운영 참여 제한이 가장 큰 아쉬움이다.

종현에는 명문으로 비구 비구니 신도가 구성원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비구니의 종단 운영 참여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열려 있다. 비구니는 종정, 원로회의 의원, 총무원장, 호계위원 등이 될 수 없고 중앙 종회회원의 수도 열 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중앙 종회회원 선거권도 마찬가지로인데 이는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⁷¹⁾

▷ 개혁주체인 비구(선우도량), 입장

종단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비구·비구니 관계와 출가 재가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그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때 비구니계에선 “비구니의 위상이 존중되고 권익이 보장되지 않는데 개혁은 무슨 개혁이냐”는 원망과 비난이 있었다.

반면 비구들로부터는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비구·비구니 사이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림으로써 비구니들을 버릇없게 만들었다”는 질타가 빗발치 듯 했다.

비구니계에선 남녀평등의 논리로 관습화된 교단체계와 질서에 저항하려 했고 비구계에선 전통적 교단질서라는 권위를 내세워 군림하려고 했다. 물론 일부 의식있는 비구·비구니들은 부처님 사상과 정신, 교단적인 전통과 현대적인 요구들을 종합하여 올바른 관계를 정립해야 된다는 건강한 신증론도 있었지만 그 목소리는 매우 미미했다. 대체적으로는 비구계에선 집단적 권위의식으로, 비구니계에선 집단적 저항으로 반응하는 분위기가 교단 전체를 압도했었다.⁷²⁾

70) 『불교신문』 2004.1.1, 「종단개혁 10주년 평가와 전망 ; 개혁 이끈 단체들,

71) 윤기원, 「특집 마무리된 조계종 개혁회의 ; 아쉬움 남긴 개종 종현」, 『대중불교』 1994.12, p.72.

72) 「권두언 ; 한국불교 제일의 명제와 대중적 결사운동의 필요성」, 『선우도량』 7호,

▷ 종단개혁 주체(개혁회의 상임부위원장, 도법), 입장
비구와 비구니, 재가와 출가 문제

상황이 그렇다곤 하지만 이 문제는 차분하게 다루어져야 할 일이다. 그리고 급격하게 다룬다고 하여 해결될 일도 아니다. 이번의 경우도 문제의 중요성을 드러냈다는 긍정성도 있긴 하지만 오히려 서로 불신하고 경계하는 꼴이 깊어져 버린 점도 없지 않다.

참으로 진지한 자세를 갖고 불교사상과 정신, 교단의 긍정적인 전통, 시대정신과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좀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하는데 대책없이 주장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다 말아버린 꼴이 되었다.⁷³⁾

이렇게 94년 종단개혁 당시의 비구니 문제에 대한 각 단체의 비평은 다양하였다. 때문에 그에 대한 탐구, 연구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자료수집, 분석이 요청된다. 이런 평가와 관련하여 최우선적으로는 비구니들이 입장, 평가가 거론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정혜도량의 활동을 지켜본 재범의 회고, 평가를 제시한다.

정혜도량이 계속 유지되지는 못하였지만 비구니스님들의 오랫동안 염원했던 일을 할 수 있는 숨통을 트이도록 했다고 할까요? 그 계기는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중략) ... 비구니 스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개혁종단 출범에 비구니의 권익 신장이 되리라는 기대도 컸고, 앞으로 열심히 포교도 하고, 수행도 하고, 후학교육도 해야 한다는 열의에 가슴이 벅차 있었습니다. 그런 비구니스님들의 열망과 열의, 종단에 대한 희망을 개혁회의가 충분히 수렴했는가를 되짚어 보면 그 기대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20년이 흐른 지금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참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때 가졌던 기대와 희망사항들이 얼마나 결실을 맺었나 생각을 해보면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다면 비구니스님들의 참종권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종단에 선거가 있을 때마다 비구니스님들의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은 물론, 민주적인 참여의 길이 제약되어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⁷⁴⁾

위의 글에서 당시 비구니들의 바람, 한계, 원망 등이 잘 나와 있다. 추후에는

1995, pp.20-21,

73) 도법, 「종단개혁의 반성적 점검과 한국불교의 창조적인 미래」, 『선우도량』 7호, 1995, p.191.

74) 『94년 종단개혁 백서』, pp.421-422.

이와 같은 다양한 증언, 회고를 찾아서 역사 자료화를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필자가 발굴한 자료에 나온 단서와 흐름만 제시하였다.

추후에는 종단개혁의 최일선에 참여한 비구니들의 성향에 대한 점이 탐구되어야 한다. 특히 개혁운동에 동참하지 않은 비구니들은 정혜도량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그리고 비구니들의 단체인 전국비구니회가 스스로 행동을 하지 않고 정혜도량의 역할 및 위상을 지지해 준 내부의 사정, 정혜도량 내부의 이질성, 비구니 개혁회의 의원 성향, 전국비구니회에서 정혜도량의 계승의식 등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야 한다. 또한 종단개혁에서 노출된 비구니의 문제(주장, 성격, 반응, 성과 등)에 대한 성격은 냉철하게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IV. 결어

맺는말은 전장에서 살핀 정혜도량의 역사와 성격(출범의 배경, 활동 등)과 관련하여 추후 더욱 다각적으로 고민을 할 문제를 서술하는 것으로 대신 하겠다.

첫째, 정혜도량의 행보, 지성이 현대기 비구니사 및 전국비구니회의 역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성격이 정리되어야 한다.⁷⁵⁾ 물론 그 전제는 비구니 역사(근·현대), 전국비구니회의 역사가 정리되고, 서술되는 전제하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둘째, 94년 종단개혁사에서 비구니들의 고뇌, 활동이 적절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서술 및 평가에서는 부재하였다. 비구니계에서도 주목받지 못하였거니와 이제는 그 연유를 성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순수하고, 초심의 마음으로 비구니 위상 증대 및 역할 고양을 위해 나온 다수의 비구니들이 제도권 종단과 혁명적인 흐름에서 느꼈던 간극의 정서도 읽어내야 할 것이다.

셋째, 94년 종단개혁의 거시적, 객관적인 평가에 유의하여 정혜도량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 종단개혁을 긍정적으로 볼 것인지 혹은 비판적으로 볼 것인가의 관점에 따라 비구니의 행보에 대한 평가도 이질적일 수 있다. 현재는 종단개혁의 우호성, 당위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비판적인 역사적 평가가 등장하면 종단개혁의 평가도 다양화 될 것이다. 그리고 불교 교단에서 관행으로 내려온

75) 『한겨레』 1994.5.29, p.9, 「불교개혁 새바람 비구니 목소리 커진다」

비구니 팔경법 혹은 율장의 측면에서 정혜도량의 행보를 바라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비구니들의 행보를 긍정적으로만 보지 않는 관점도 있다. 종단개혁의 최일선에서 대중으로 참여한 비구니들의 일부에는 비구니계를 받지 않은 학인(사미)도 있었다. 정식 승려(비구니)의 신분이 아니면서 대중이라는 명분으로 승단·교단의 문제에 깊숙이 개입한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민주주의 관점도 있지만 승단 및 율장이라는 전통의 관점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당시 비구 율사들은 비구니의 행보를 비판적으로 인식하였다.⁷⁶⁾ 그렇다면 戒壇에서 활동을 하였던 비구니 율사들은 어떤 입장이었을까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그리고 정화운동을 경험한 연로한 비구니들은 어떤 반응을 가졌는가에 대한 탐구도 흥미롭다.

넷째, 정혜도량에서 주장한 내용 및 스스로 퇴진한 연유를 폭 넓게 조사해야 한다. 예컨대 갓바위(선본사)와 은혜사를 제공해 달라는 비구니의 주장도 그 사례이다. 그리고 그 당시 총무원 부원장(지하)과 정혜도량 비구니 수십여명과와의 간담회(총무원, 회관 ; 94년 7월?)도⁷⁷⁾ 파악할 내용이다. 이 간담회의 현장에 있었던 비구니들은 종단에서 비구니들을 대하는 현실을 직면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각자의 연고지로 흩어졌고 정혜도량 퇴진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였다는 증언이 있다.⁷⁸⁾

다섯째, 정혜도량이 제기한 다양한 분야의 대안과 이념이 2020년대인 현재도 계승할 가치가 있는가이다. 가치와 의의가 있다면 더욱 더 찾고, 조명하고, 분석하여 계승할 대상과 역사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정혜도량 계승의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⁷⁹⁾ 그러면서 성찰하고, 비판받아야 할 내용이 있었다면 무엇인

76) 『불교신문』 1994.7.1, 「계율회복 위한 율사회의 - 개혁의 근본은 계율정신 회복」. 전계대화상인 일타가 참여했다. 율사인 법혜(동국대 교수)의 의견은 『선우도량』 7호, 1995, pp.133-136에 선명하게 나온다.

77) 정확한 시점은 확인할 내용이다.

78) 당시 총무국장을 역임한 지원의 주장이다.

79) 전국비구니회장이었던 명우는 2012 2월 28일, 「자성과 쇄신을 위한 비구니 승가의 위상과 역할」 세미나에서 “우담바라회와 정혜도량이 관철하려던 비구니의식 개혁과 위상 정립 과제를 원만히 성사시키지 못한 점을 참회한다”면서 “자성과 쇄신결사를 통해 한국불교 자긍심을 되찾고 국민불교로 다시서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데 이부승가의 한축인 비구니 승가 역시 종단결사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불교닷컴』 2012.2.28, 「전국비구니회 비구니 총회의원 ‘비구니

지, 한계는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여섯째, 94년 종단개혁 당시 비구니의 참여, 정혜도량에서의 건의 등으로 인해 종단 운영에 반영된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리해야 한다. 예컨대 총무원 집행부에 비구니 부장·국장 임용, 비구니 明師 임명 등과의 상관성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전국비구니회관 건립에 영향을 미쳤는가도 살필 수 있다.

일곱째, 정혜도량에 대한 자료의 수집 및 자료집 발간을 요청한다. 비구니 역사는 전국비구니회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조계종단사, 현대불교사에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자료가 산실되기 이전, 관련자가 생존시에 자료를 찾고, 증언 채록을 하여 자료집을 발간해야 한다.

이상으로 정혜도량을 소재로 하여 추후 연구할 대상 주제인 현대기 비구니들의 고뇌, 지성, 활동, 대안 등의 단면을 개진하였다. 추후, 다양한 방면의 학자들에 의해 진일보한 비구니의 개혁에 대한 연구가 나오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개혁회의, 『종단개혁 불사 백서』, 1994.
- 조계종, 『조계종사 - 근현대편』, 조계종출판사, 2001.
- 조계종, 『94년 종단개혁 백서』, 조계종 총무원 개혁불사 2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2016.
- 비구니 정혜도량, 『제2회 비구니 의식개혁 세미나 자료집』, 1994.
- 『대중불교』 141호(1994. 8), 「기획 좌담 · 비구니 정혜도량의 행보」
- 『월간 해인』 148호(1994. 6), 「호계삼소 ; 정혜도량 해수스님」
- 『불광』 236호(1994. 6), 「창립 20주년 연속대담 ; 계·정·혜 삼학(三學)으로 밝히는 ‘비구니 정혜도량」
- 수 경, 「한국 비구니 강원 발달사」, 『한국 비구니의 수행과 삶』, 예문서원, 2007.
- 탁 연, 「교단내 비구니 위상 정립을 위하여」, 『비구니』 29 · 30합호, 2011.
- 하춘생, 『한국의 비구니문중』, 해조음, 2013.
- 혜 원, 「근현대기 한일 비구니의 존재양상에 대한 시론적 고찰」, 『대각사상』 22집, 2014.
- 김광식, 「90년대 조계종단 ‘개혁’의 연구, 회고와 전망」, 『조계종단의 개혁과 정화의 제문제』, 중도기획, 2018.
- _____, 「한국 현대불교의 종단사와 이념」, 『교수불자연합학회지』 24권 2호, 2018.
- 덕 산, 「승쟁에 대한 석존의 교계와 4·10승려대회」, 『승가화합과 한국불교의 미래』, 혜민기획, 2005.
- _____, 『조계종단 개혁의 재인식』, 혜민기획, 2021.
- 원 두, 「94년 4·10 승려대회의 결의와 종단개혁 청사진」, 『조계종단의 개혁과 정화의 제문제』, 중도기획, 2018.
- 이재형, 「개혁회의」, 『불교평론』 50호, 2012.
- 옥복연, 「다시 팔경계(八敬戒)를 소환하며」, 『불교평론』 62호, 2015.
- 황인규, 「근현대 비구니와 불교정화운동」, 『불교정화운동의 재조명』, 조계종출판사, 2008.
- _____, 「근대 비구니의 동향과 덕승총림 비구니들」, 『경허 · 만공의 선풍과 법맥』, 조계종출판사, 2009.
- 조기룡, 「대한불교조계종의 개혁, 해암성관의 활동과 고민」, 『해암선사의 선사상과 세계화』, 시화음, 2020.

Abstract

Bhikkuni JeongHyedoryang(1994) of history and personality

Kim, kwang-sik
(Professor, Dongguk Univ.)

This review is an academic summary of 'JeongHyedoryang'(정혜도량) history and personality a reform organization of nuns that spontaneously appeared and worked during the longitudinal reform in 1994. Although research on longitudinal reform in 1994 has not been intensified, there is no research on all the problems of nuns who actively participated in longitudinal reform.

Against this background, in this article, I took note of the following aspects. First, we tried to examine the process of inauguration of JeongHyedoryang based on objective grounds. Second, I tried to examine the activities and characteristics of Jeong Hye Do-ryang in detail, relying on literature and testimony. Jeong Hye-doryang was established to serve as a single channel for the reform of the end of the bhikkhuni prior to the inauguration of the end of the clan. Third, Hye Doyang Jeong tried to examine the causes and limitations of his own resignation in the middle of 1994 when the longitudinal reform was underway. Jeong Hye-do-ryang conveyed the will of the Bikkhuni to reform the religious sect, but voluntarily disbanded just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clan. Fourth, I tried to examine the influence and a sense of succession of JeongHyedoryang. Jeong Hye-doryang became a history of Bikkhuni reform, but his will to succeed was weak.

I hope that this article will serve as a catalyst for research on the ending reform in 1994, the history of modern Korean monks, and the history of the Buddhist monks of the Jogye Order. Studies on the history, culture, and character of nuns are poor. A few years ago, a study on the practice and life of the eldest monk of the monk of the monk was started by the National Bhikkhuni Association of the Jogye Order and the Bhikkuni Research Institute, but no

follow-up studies have been made. Recently, the Korean Bhikkhuni Sangha Institute was opened under the National Bhikkhuni Association, and this will lead to vitalization of Bhikkuni research. I hope this article will join the new flow of research on Bhikkuni.

Key words

Bhikkuni, 'JeongHyedoryang, longitudinal reform, Jogye Order, National Bhikkhuni Association, Bhikkuni Institute